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09년도 표어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위를 바라보며 (시편 123:1-4)

Lifting up our eyes (Psalm 123:1-4)

본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네 번째로 순례자가 기쁜 노래를 다가가 갑자기 탄원시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바벨론의 조소가 극에 달했을 때 또는 이스라엘로 귀환한 후 성전 재건을 둘러싸고 사마리아인의 훼방이 집요했던 때에 이 시를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This psalm is the fourth psalm of ascents, which pilgrims sang as they ascended joyfully to the temple. However, we see that, all of a sudden, its content has shifted from a joyful song into an entreatment. Perhaps, this psalm was written when the Jews were being greatly ridiculed during their exile in Babylon, or perhaps when they were persistently prevented by the people of Samaria from rebuilding their wall after they had returned from exile to Israel.

1.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주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모든 가르침과 지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소한 일까지라도 항상 기쁨으로 섬기고 인자와 공급 하심과 구원을 기대하면서 주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신뢰할만한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길게,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단순하게, 겸손하게, 애원하는 심정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1. We lift our eyes and look to the Lord

Christians must always stand where they can look up toward the Lord their God. As a Christian, you need to keep your eyes on Him and look towards Him. Moreover, you need to pay attention to all of His teachings and instruction with patience. You need to serve, even with a mere trifle of joy and look to the hand of the Lord by looking for His charity, supply, and salvation. Christians do not have any other sources which they can trust. Christians must look to the Lord with fear, obedience, caution, succession, expectation, simplicity, humility, and entreatment.

2. 심한 멸시가 우리 앞에 있나이다

시인은 느헤미야가 당했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멸시를 당할 때 보복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느 4:4).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묵묵히 계속했습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받은 과업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히 4:16).

2. We have much contempt towards us

The psalmist experienced the ridicule and contempt that Nehemiah, son of Hacaliah, had experienced when he was despised by the arrogant. When he was despised, he didn't retaliate, but prayed to God by calling for His help (Nehemiah 4:40). Moreover, He continued to work silently toward the goal God had given him. He was faithful to the work that he had received with a clear awareness of God's purpose.

We know that God's grace is in Jesus Christ. Therefore, we must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Hebrews 4:16).

3. 노예 중의 노예

우리를 죄와 자만에서 끌어 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던 존 뉴턴(John Newton)은 복음을 전하다가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Slaves among slaves

The only way that you can be drawn up away from sin and arrogance is when you receive God's grace and righteousness. John Newton, who preached the gospel in Africa, did not give up on even a single person during his missionary work. Whenever he reached the point of despair, he said, "because God saved a wretch like me."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Conclusion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종종 절망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As we walk on the path of a pilgrim, we will often come across despair. Whenever that happens, we need to understand what is happening to us and thank God for His grace and righteousness. He has made us alive with Christ. He has raised us up with Christ. He has seated us with Christ in the heavenly realms. His mercy will lead us up to fill that graceful seat.

We can consecrate ourselves to God by becoming convinced of God's grace and by devoting ourselves to the highest level of obedience. Every day, as you lift up your eyes and look to God, you will be given His grace and righteousness.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come God's faithful people in Jesus Christ.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들』

16일(월)부터 21일(토)까지 새벽 5시부터

‘섬겨야 합니다’를 주제로 50일간 계속되는 2009 사명자 대회가 한 주일을 남겨놓고 온 교회는 특별새벽기도회를 갖고 5대 기도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 한다.

이종윤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메시지를 받게 된다.

안일주의와 세속주의 물결이 파도처럼 덮쳐오는 현실 앞

에서 개인 신앙의 위기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 해야 하는 시점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길을 찾으시기 바란다. 새벽기도회 후 직장으로 바로 가실 분을 위해 8층 만나 홀에서 간단한 조식을 할 수 있도록 사명자 대회본부(본부장: 임훈규 장로)는 준비하고 있다. 교구마다, 부서마다 새벽을 깨워 함께 이 멋진 은혜의 잔치에 참여토록 하자.

교회설립기념주일 · 추수감사절 / 제10대 장로임직 · 선교사 파송

11월22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우리교회는 다음주일을 교회설립기념주일 및 추수감사절로 함께 지킨다. 주일예배 시간에는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예식을 갖고, 찬양예배시간에는 교회설립을 허락하

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10대 장로임직식과 2009년도 선교사 파송식을 거행한다.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는 교회설립기념주일 및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기도한다.

제3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16일(월) 수료

- 10years round table member도 -

지난 9월7일(월) 개강하여 ‘한국교회의 성장과 연합을 위한 교과신학의 정체성’을 주제로 11주 동안 은혜로운 강의로 계속되던 제3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16일(월) 1교시 이종윤 목사의 호세아서 강해와 2교시 침례신학대학교 총장 도한호 박사의 강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학사일정을 마친다.

이번 학기는 1교시 이종윤 목사의 소선지서 강해 첫 순서로 호세아서가 새로 시작되었으며 2교시에는 대한민국 개혁교회를 대표하는 11개 교단에서 초빙된 강사가 자신이 속한 교단의 신학을 강의하여 참석한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36학기를 종강하며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은 4학기를 이수하고 수료하는 회원 17명과 10년 동안 목회자세미나에 참석한 회원(10years round table members) 5명을 배출하였다.

이들은 종강식에서 시상을 하게 되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4학기 수료자>-17명
김해경(07-557 노아방주교회) 김정자(96-3465 주사랑교회) 류성렬(92-0879 새남교회) 문영희(03-0027 창대교회) 민찬기(8-025 영동제일교회) 백애순(08-003 큰빛교회) 성정환(08-045 기쁨순복음교회) 신우선(07-089 예쁨교회) 이영남(07-014 모리아장로교회) 이영언(07-109 사랑교회) 이오녀(07-110 사랑교회) 장순자(06-158 주안장로교회) 조정자(96-3361 평화기도원) 김철성(할렐루야교회) 최윤경(안암제일교회) 최인숙(생명나무교회) 박인숙(예본교회)

<10years round table members>-5명
김인수(95-2636 예수님교회) 신승식(98-4187 분향교회) 이영하(98-4287 좋은교회) 이용하(99-4551 축복교회) 정동환(97-3829 북가좌2동 서울교회)

2009년 마지막 새가족 환영회

11월21일(토) 오후 4시30분 801호 / 7월19일 이후 등록한 새가족 초청

올해 마지막 새가족 환영회가 11월 21일(토) 오후 4시30분 801호에서 열린다. 7월 19일 이후 새로 등록한 새가족과 그 이전 등록한 분들 중에도 지난 번 새가족환영회에 참석하지 않은 새가족 모두를 초청한다.

새가족환영회에 참석할 성도들은 당일 오후4시30분까지 801호에 모여 찬양으로 준비하고 5시에 환영회를 시작한다.

이번 새가족환영회에 참석하는 가정마다 서울교회 10년사를 선물로 드리고 참석한 새가족 중 5분을 추천하여 위임목사님이 친필로 서명한 성경찬송(새찬송가)합본 1권씩을 선물로 증정한다.

서울교회 등록한 새가족들이 하나 되고 교회에 잘 정착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한다.

2010년도 신입 서리집사 교육 및 면접

구분	일시	장소
교육	(2) 11/20(금) 오후 7시	501호
	(3) 11/21(토) 오전 6시 15분	
	(4) 11/21(토) 오후 7시	
당회원 면접	(2) 11/20(금) 오후 7시 45분	남-603호 609호
	(3) 11/21(토) 오전 7시	여-602호 606호
	(4) 11/21(토) 오후 7시 45분	대기-601호

2010년도에 처음으로 임명받는 신입 서리집사에 대한 교육과 당회원 면접이 실시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집사로서의 사명과 제직회의 기능에 대해 배우고 교육이 끝난 후 당회원 면접이 즉시 실시된다. 내년도 신입 서리집사로 처음 임명을 받는 이들은 아래의 시간표를 참조하여 본인의 형편에 맞게 선택하여 교육과 면접 각 1회 참석하면 된다.

신입 서리집사들이 하나님의 총성된 청지기 되기를 기도한다.

교회 게시판 게시물 관리
사무국에서 승인 받도록

우리교회는 교회의 중요 공지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5층부터 7층까지 교육실 복도에 게시판을 비치하여 성도들에게 각종 사항 등을 공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각 부서와 외부 행사의 안내 게시물이 사무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다. 추후 게시판에 각종 안내문을 부착하려는 부서는 반드시 사무국의 승인을 얻은 후 게시판을 이용하기 바란다.

11월 성경통독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필사> (16교구) 정복순 권사
- <5독> (9교구)송옥혜 권사
- <4독> (9교구)조명녀 권사
- <3독> (6교구)최위춘 권사 (13교구) 박정자 성도 (15교구)이성자 성도
- <2독> (4교구)민정이 권사 (6교구)임귀순 권사 (9교구)윤봉준 장로 전용순 권사 (10교구)여현진 권사 (12교구)오광환 집사
- <1독> (1교구)박순자 권사 서경애 권사 (4교구)정창빈 집사 (6교구)김경옥 권사 양지훈 집사 윤숙희 권사 허인숙 권사 (9교구)이남성 집사 한옥순 권사 (10교구)윤영남 권사 (11교구)국산옥 권사 박민기 성도 (12교구)이인선 권사 (14교구)박춘자 집사 (16교구)정정숙 권사 최규초 집사

2010학년도
호산나대학 입학설명회
및 신입생 원서접수

2009년 11월 7일(토) 오전 10시 30분 아가페타운 사랑의 집 102호에서 2010학년도 호산나대학 입학설명회가 있었다. 전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학부모 및 교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2010학년도 입학설명회에서는 본교 대학 미션, 비전 등의 소개, 가평캠퍼스 이전에 따른 스쿨버스 운영 및 기숙사 설치 운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다. 올해 입학설명회는 아가페타운 내 호산나대학 캠퍼스 이전과 함께 입학지원자, 학부모,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진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대학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히 전달하였다.

제3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수료하면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초석

이영남 목사
(모리아장로교회)



제3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수료식을 가지며 이 날이 있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울러 주옥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강론해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어려운 목회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노심초사 열심히 사역하시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도전의식을 고취시킴으로 목회와 전도에 획기적 도움과 비전을 주신 존경하는 이종윤 목사님의 헌신적 사랑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좋은 장소를 허락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수고해주신 서울교회 당회와 제직회와 성도님 여러분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바는 이 목회자신학세미나는 단지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지금도 변치 않으시고 인간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시고 역사하심의 열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 이종윤 목사님을 값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시는 과정이라 확실히 믿습니다.

짧은 시간도 아닌 장기간을 통하여 목사님의 건강을 지

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은사를 크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다시금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울러 18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변치 않고 온 교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목사님을 도와서 봉사와 헌신으로 수고하신 서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노고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다른 모든 교회의 귀감이 될 줄 믿어서 거듭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보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수료하시는 목회자님 모두가 한결 같은 마음으로 바라고 간구하는 바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은혜로 보람되고 값진 목회자신학세미나의 열매가 더욱 장성하여 이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초석이 되어 앞으로 많은 세월을 통하여 더욱 발전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돌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며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가 존경하는 이종윤 목사님과 서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영철 집사(11교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직은 남은 사명이 있기에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른 막대기만 못하고 타다 남은 부지깥이만 못한 이 죄인에게 남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죄악으로 얼룩진 삶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기 보다는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신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넘어질 때 마다 일으키시며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 명령 앞에 이 죄인이 드릴 말씀은 오직 한 마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일 할 때 까지만 살게 해 주세요 아니 저 일도 해놓고 가게 해 주세요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살게 해 주세요 하오나 생명이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 시간표대로만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죽으렵니다.

오직 그 날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부대학을 마치고

생활의 활력소

정병무 장로 (주부대학부장)



"건강한 여가 생활"이라는 제하의 주부대학이 문화의 기독교화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 비전에 발맞추어 해마다 봄, 가을 두 학기로 열리어 어언 18학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대처동 성전 시대를 새롭게 출발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받아 열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주부대학이 한 과정으로 설정되어 지금까지 학기를 거듭하면서 더욱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흥미에 흥미를 더해가며 곳곳에 어둠의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고, 위협과 유혹이 춤을 추는 현대문화와 현실 사회는, 우리 천국시민을 지향하는 우리들에게 방관할 수만 없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공인하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감사가 흘러넘치는 신앙공동체로 서울교회 주부대학이 있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며 오직 영광은 주께만 돌려드립니다.

이번 학기 첫 시간은 활기찬 삶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건강을 위하여 "스트레칭의 이론과 실습"으로 충전을 받아, 시간이 거듭되면서 알찬내용과 교양, 그리고 삶의 지혜와 현장감을 곁들여 진행함으로 열기를 더해 갔으며, 마지막 9번째, 10번째 시간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관리"와 "메이크업의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으로 주부의 필수 덕목인 심신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익힘으로, 건강한 여가 생활에 활력소를 삼았습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하신 말씀 따라, 이미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날마다 승리하며 건강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학기에도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권면드립니다.

특별찬양

열렸다 하늘문이...

김영준 장로
(엘렐루야찬양대 부장)

할렐루야!
추수감사절과 교회설립 18주년을 맞이하면서 올해에도 풍성함으로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던 날,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양떼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영문 밖으로 나갔던 목자를 되돌리시어 서울교회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은혜의 강이 넘치게 하시며 영영한 아름다움과 독수리의 날개 침 같이 올라가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18년 전 어느 날, 하늘은 빛을 잃고 땅은 진동하며 사지가 마비되

한 아름다움과 독수리의 날개 침 같이 올라가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서울교회 20년사 편찬

후세에 길이 남길 은혜의 교과서

김민철 집사
(서울교회 20년사 편찬위원)

내년은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햇수로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 꿇고 시작해 쉽 없이 달려온 우리 교회의 20년은 참으로 기적의 세월이었습니다.



내년 말 발간을 목표로, 현재는 20년사 내용에 넣을 역사자료를 모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행된 <순례자>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채록하고, 각종 기록물을 모아둔 자료실에서 서울

개교회로선 벽찬 사역들을 그토록 많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이는 주님 오실 때까지 두고두고 크나큰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도 기록자의 '기록'을 통해 후세에 전해졌듯이, 하나님이 서울교회 위에 허락하신 그 많은 체험과 감사의 기억들을 '기록'으로 남겨 놓을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좋은 모범이 될 것입니다.

서울교회 20년사 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는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지난 5월 발족했습니다. 서명철 지도목사님과 편찬위원장인 하인선 장로님 이하 청년부 젊은이들과 순례자 편집위원 등 약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교회 역사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선별, 정리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당 어느 한 구석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자료들과 씨름하며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기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20년이란 시간차를 두고 만들어진 역사자료들을 한데 모아놓고 퍼즐을 맞추듯 정리하다 보면,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우리는 늘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배웁니다. <서울교회 20년사>편찬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되짚어 보는 일입니다. 이 일은 저희 편찬위원들만으론 감당할 수 없으며, 모든 성도들이 동참할 때 더 큰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잘 정리하여 후세와 한국교회에 남길 거룩한 은혜의 교과서가 되도록 계속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별찬양

올 한 해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특별순서가 오늘부터 22일(주일)까지 계속된다. 오늘은 2부예배를 담당하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종운 목사 작시, 박정선 장로 작곡의 칸타타 '열렸다 하늘 문이' 전곡을 찬양한다. 지휘는 고성진집사, 오르간은 김윤지 선생, 피아노는 김양언 선생, 팀파니 박광서 집사가 수고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종운 목사님의 작사와 박정선 장로님이 성령님과 함께 작곡하신 <열렸다 하늘 문이>라는 제목의 칸타타로 서울교회에 향하신 특별한은총을 환희와 감사의 노래로 시온산에서 소리 높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종운 목사 설교방송 시간변경

CTS 기독교 TV "생명의 말씀" 이종운 목사 설교 방송 시간이 방송국 사정으로 11월 16일(월) 오후 1시30분에서 11월19일(목) 오후1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사랑부 - 천사들의 합창

사랑부 천사들의 합창 공연이 오늘 오후2시부터 3시까지 101호(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등정

- 이종운 목사는 17일(화) Theological Journal of KIMCHE 편집위원회, 20일(금)한장총 임원회, 예딘버러 선교사대회 100주년 한국대회 준비위를 소집한다.
- 박병욱 집사(14교구)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의료산업분야 Senior Adviser로 선임되었다.
- 개업 : 11교구 박만기·홍은심 성도 '아재마루' 도봉구 창5동 주공1단지 정문앞 010-8872-8163
- 주간식당 봉사: 루디아전도회(11.15) 뱀뱀전도회(11.22)
- 금주의 식사: 김영주 집사 이해순 권사 가정(자녀결혼 감사하며)
- 단감 제공: 하영숙 집사(1교구) -사명자대회 받은 은혜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아가페타운이 위치한 청평 주민들이 복을 받게 하소서.
3. 2009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은혜충만 토록
4. 공의와 질서가 회복된 사회 이루고 북한의 전쟁위협은 사라지도록

■ 교회우시는 길

